

서울경제

회화의 마스터 랄프 플렉(Ralph Fleck) 개인전 ‘Painting’25일 개막

기사입력 2013-09-23 09:27 최종수정 2013-09-24 13:47



왼쪽부터 'Still Life 13/IV, 2013' 'Stack 9/VI, 2013', 'Berlin 11/XII, 2012', oil on canvas

“랄프 플렉에게는 일관된 목표가 있다. 고유한 그림, 정통의 방법으로 그림을 창조하는 것이다..... 랄프 플렉에게는 사물을 세밀하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관찰’과 한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리감’ 사이를 넘나드는 그만의 고유한 회화방식이 있다..... 랄프 플렉이 그리는 대상은 원래의 모습을 벗어나 이 화가의 ‘페인팅’이라는 행위를 통해 재발견된다. 그런 점에서, 그의 회화는 본질적으로 추상화다.”-수 허바드(Sue Hubbard, 시인, 소설가, 미술평론가)

313아트프로젝트는 독일이 낳은 ‘회화의 마스터’ 랄프 플렉(Ralph Fleck, 1951~)의 개인전 ‘Painting’을 9월 25일~11월 10일 연다.

랄프 플렉은 “아티스트는 트렌드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스타일에 확신을 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고집하고, 초조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고집스러움 덕에 그는 동시대 어떤 작가나 그룹이나 트렌드에도 속하지 않는, 그만의 뚜렷하고 독특한 세계를 인정받고 있다.

랄프 플렉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 풍경과 들판의 풍경, 해변이나 경기장에 모인 군중, 서재의 책꽂이에 뿔뿔하게 꽂힌 책더미 등을 그린다. 그는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세밀한 묘사와 멀찌감치 떨어져서 군중을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보는 관조적 시각 두 가지를 한 화면 속에 절묘하게 녹여서 그리고 있다.

이런 그의 회화는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그의 회화는 구상화이기도 하고 추상화이기도 하다. 재현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아 볼 수 있지만, 작가의 주관적 표현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둘째, 랄프 플렉의 그림에서는 유화 물감의 물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꺼운 마티에르로 표현되는 그의 그림을 볼 때는 물감이 움직인 자국과 돌출된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즐거움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0년 313아트프로젝트에서 했던 첫 번째 개인전에 이은 그의 한국에서 두 번째 개인전이다.

첫 번째 전시는 아시아 지역의 랄프 플렉 팬들에게 보이는 첫 전시였던만큼 작가의 대표적인 시리즈를 골고루 보여 주었고, 당시 전시작품은 모두 솔드아웃 되었다. 이번에는 가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게 책장 시리즈 신작을 중심으로 도시풍경, 들판 풍경 등 모두 23점을 전시한다. 313아트프로젝트의 광병욱 국제전시팀장은 “휴가 시즌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는 시기를 맞아, 10여점의 책장 시리즈를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 작가가 소장하고 있던 가로 6m 짜리 대형 유채꽃 풍경 작품도 주목할만하다.

랄프 플렉은 독일 프라이버그에서 태어났고 그 곳에서 작업해오고 있으며, 현재 뉴렘부르크 Academy of Fine Arts의 교수이기도 하다. 독일에서는 포럼 쿤스트(Forum Kunst, 2012), 카를스루에 스타틀리쉬 미술관 (Staatliche Kunsthalle Karlsruhe, 2011), 로트바일 라움 미술관(Kunst Raum, 2011), 베를린 게겐바르트 미술관(Museum der Gegenwart, 2011), 프리히버그 아우구스티네 미술관(Augustiner Museum, 2011), 함부르크 쿤스트 하우스(2004) 등에서 전시했고, 이밖에 서울 313 ART PROJECT(2010), 스위스 로잔느 칸토날레 보자르 미술관(Musee Cantonal des Beaux-Arts, 2008),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현대미술관(2004), 벨기에 오스텐드 근대미술관(Museum Voor Moderne Kuste, 2003) 등에서 전시 했다.

현재 랄프 플렉의 작품은 독일 국회의사당(Bundesbildungministerium), 마드리드 현대미술관(Museo Municipal de Arte Contemporaneo), 독일 한노버 스프렐겔 미술관(Sprengel-Museum), 취리히 미술관 (Kunsthaus Zurich), 뉴욕의 도이치 뱅크 등 세계의 주요 미술관과 유수의 기관 및 컬렉터들에게 소장되어 있다.

313 아트 프로젝트는 강남의 새로운 아트 허브인 도산공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2010년 6월 오픈한 이후 지금까지 소피 칼, 토니 아워슬러, 존 케슬러, 에릭 불라토프, 테레시타 페르난데즈, 애슐리 비커튼, 자비에 베이앙, 에나 스완 시, 길버트&조지, 빅 뮤니즈 등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들을 국내에 소개해 오고 있다. (사진 = 이앤아트 제공)

/이지윤 기자zhirun@sed.co.kr

[관련기사]

-  **갤노트3 돌풍 잠재울 대항마 났다**
-  **공무원들의 추악한 실체에 분노 폭발**
-  **이영애의 고전미에 이탈리아 '홀딱'**
-  **레이저로... 한국 전투기 강력해진다**
-  **"일본과 반대로 한국은 행운아"**

 **국내유일 발모촉진·탈모방지 특허 샴푸 눈길**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1&aid=0002396404>